

# 나들이 가볍게 떠나요... 외식업, 벚꽃 맞이 피크닉 메뉴 '붓물'

스쿨푸드, 일본식 '타마고산도' 써브웨이, '2023 SS 치킨 컬렉션' 던킨, 귀리활용 '오트그레놀라 필드'

따뜻한 봄 날씨에 3월 말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본격 해제되자 외식업계는 피크닉 메뉴 출시에 분주한 모습이다.

야외 활동을 즐기기 위해 국내 여러 공원과 캠핑장 등 외부로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는 작은 사이즈의 휴대성은 물론 깔끔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신메뉴에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다.

샌드위치는 다양한 피크닉 음식 중에서도 단연 인기다. 간단하게 포장할 수 있으며, 커피와 차 등의 음료와 공함이 좋은 것이 이유다. 프리미엄 분식 스쿨푸드는 지난 21일 도쿄 맛집 '아마노야'의 레시피를 활용해 일본식 샌드위치 '홀그레이트 타마고산도'를 선보였다.

이번 신메뉴는 흰 식빵 사이에 두툼하고 몽글몽글한 계란을 넣어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으며, 빵 한 쪽 면에는 홀그레이트 머스타드 소스를 발라 짭조름



홀그레이트 타마고산도. /스쿨푸드

한 맛도 경험할 수 있다. 현재는 스쿨푸드 딜리버리 직영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으며, 반포한강공원과 잠원한강공원에서 간편하게 배달로 이용할 수도 있다.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는 봄 시즌을 맞아 더 건강하고 신선한 '2023 SS 치킨 컬렉션'을 마련했다. 지난 6일 선보인 '2023 SS 치킨 컬렉션'은 기름 대신 오븐에 굽거나 수비드한 로스트 치킨과 로티

세리 바비큐 치킨을 활용한 샌드위치와 샐러드 등 총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써브웨이 고유의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이용해 빵부터 치즈, 채소, 소스 등 본인의 취향에 맞게 샌드위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샌드위치 대신 샐러드를 선택할 경우 더욱 다채로운 채소와 토핑의 공감을 경험할 수 있다.

헬스플레저 트렌드와 피크닉 시즌이



오트 그레놀라 필드. /던킨

맞물려 샐러드 출시도 한창이다. 특히 노브랜드 버거는 '소식 트렌드'에 집중한 '그린샐러드 미니'를 20일 출시했다. 용량은 기존 그린샐러드의 절반 수준인 100g이며 양상추, 적채, 방울토마토 등 채소와 감칠맛을 자랑하는 드레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노브랜드 버거는 이달 바삭한 패티를 경험할 수 있는 '치폴레 핫 치

킨'도 새롭게 출시했다. 치폴레 소스와 치킨 패티의 조화를 느낄 수 있으며, 타 버거 프랜차이즈의 치킨 메뉴 대비 약 20%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커피와 어울리는 디저트도 피크닉 음식으로 빠질 수 없다. 던킨은 풍부한 영양을 지닌 귀리(오트)를 활용한 '오트 그레놀라 필드'를 20일 선보였다. 신메뉴는 오트리 오트 음료로 만든 필링이 가득 들어갔으며, 그 위에 바삭한 그레놀라를 첨가해 바삭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야흐로 벚꽃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움츠렸던 야외 활동이 기지개를 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피크닉 메뉴로 제각각의 여러 신메뉴 출시에 한창이다"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되면서 야외활동을 펼치는 소비자를 공략하는 업계의 전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노연홍, "6대 제약바이오 강국 만들겠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미국·유럽·아시아 등 진출 가속화 유통 판로 확대 등 글로벌 본격 공략

새롭게 취임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의 육성 정책에 발 맞춰 5년내 세계 6대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회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적 딜레마를 안겼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시장 주도권 선점 경쟁이 가열되며 제약바이오산업은 이제 기술 패권의 핵심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런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지난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

계획'을 발표한다 바 있다.

노 회장은 이와 관련 "국민 앞에 제시된 정부의 핵심 전략과 정책들이 민·관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협회 역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맞춰 취 핵심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협회가 구축한 신약개발 기술거래 플랫폼(K-SPACE)의 운영 활성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메가 펀드 조성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미국·유럽은 물론 아시아·신흥시장 진출 가속화와 유통 판로 확대 등 글로벌 공략을 본격화해 의약품 수출도 2배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청사진 대로 세계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정맥순환장애 방지하면 다리괴양 가능성↑

동국제약, '센시아' 종아리 부종 개선

발·다리가 붓고 아픈 정맥순환장애는 성인의 약 50%가 경험하지만 그 중 절반 이상이 치료 없이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맥순환장애를 방지하면 하지정맥류나 다리괴양으로 발전할 수 있어 전신 순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국제약이 2022년 시장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의 정맥순환장애 경험율은 36.7%이고,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정맥순환장애 경험율은 61.9%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경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정맥순환장애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 질환이므로 평소 본인의 다리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질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증상이 있다면 센시아처럼 입증된 의약품을 통한 관리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센시아는 '센텔라정량추출물'이 주

성분인 식물성분의 정맥순환 개선제로, 콜라겐 합성 촉진을 통한 정맥의 탄력 향상, 모세혈관 투과성 정상화 및 항산화 작용 등을 통해 발, 종아리, 다리가 붓고 아픈 정맥순환장애를 효과적으로 개선해준다. 센텔라정량추출물 임상연구에 따르면 복용 1개월 후 통증, 둔중감, 경직감, 야간경련 등이 70% 이상 감소했고, 종아리와 발목의 부종을 개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세경 기자



## LG생활건강, ESG 디지털 전환 본궤도

청소년에 올바른 친환경 세계관 전

LG생활건강은 ESG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에게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올바른 친환경 세계관을 전하고, 실천에 참여하도록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빌러쓰는 지구월드'를 개설한다. 빌러쓰는 지구월드는 국내 최고 수준의 개발사인 유티플러스인터랙티브가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 '디토랜드'를

기반으로 환경단체 에코맘코리아 등과 공동 제작했다. 현실과 가상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메타버스 구축을 시작하면서, LG생활건강의 ESG 디지털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쓰레기 분리배출 ▲손 씻기 ▲세안 ▲양치 등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습득해야 할 필수적인 생활 습관을 배우고, 각 도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

/이세경 기자

## 갱년기 영양제 '루바브&리바이탈' 선포

동아제약, 멀티비타민·미네랄 배합

동아제약은 갱년기 영양제인 '루바브&리바이탈'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루바브&리바이탈은 여성 갱년기에 부족한 에스트로겐의 활성을 도와주는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함유한 여성 갱년기 건강기능식품이다. 갱년기는 중년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며 폐경의 시작으로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감소해

발생하게 된다. 안면홍조, 질 건조증, 발한 등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고 수면 장애 및 우울증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동아제약의 루바브&리바이탈 제품은 루바브 성분 외에도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테아닌과 멀티비타민, 미네랄을 독점적으로 배합했으며 여성 건강에 좋은 석류, 홍경천, 은행엽, 콜라겐 등을 부원료로 함유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hy, 저당 유산균 음료 '케어온 당밸런스'

hy가 저당 유산균 음료 시장을 공략한다. hy는 균형영양식 '케어온 당케어'에 이어 '케어온 당밸런스(이하 당밸런스)'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제품은 당뇨관리 플랫폼 기업 '닥터다이어리'와 협업해 개발했다. 자사 일반제품 대비 당함량을 79% 줄인 저당 제품이다. 100ml 기준 당함량은 1.5g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저당 표시기

준을 충족한다.

당밸런스는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이다. 대체당 '알룰로스'를 적용한 저당 설계가 특징이다. 기능성 소재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도 11200mg 함유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및 원활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수용성 식이섬유다.

/신원선 기자